

# 고 달픈 낙농

농수산부 낙농과

김 현 계장

낙농진흥법 제 2 조에는 “낙농”이라함은 생유(生乳)를 생산하기 위하여 유우(乳牛) 및 유독우(乳犢牛)를 사양관리함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낙농가는 생유를 생산하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는지 직접 젖소를 길러 본 경험이 없는 자는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이 당연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1년 열두달 365일 하루도 쉬는 날이 없이 아침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젖소와 함께 생활을 해야 하는 것이 낙농가이다.

그 뿐이 아니다 설날 추석등 명절은 고사하고 흔히들 도시인들이 찾는 여름철 바닷가 또는 산 같은 곳에 피서 한번 가보지 못하고 어린 송아지를 튼튼하게 길러야 하며 새끼를 낳을때가 가까워 진 젖소에 대해서는 난산이 이루어 지지 않도록 세심한 관리와 주의를 해야하고 병든 소에게는 정성껏 간호를 하고 젖을 짜는 소는 유방염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젖을 짜야 하는 생활이 하루도 빠짐없이 되풀이 되고 있기때문에 낙농을 영위하는 사람은 고달프기만 하는 것이다.

얼어 붙어든 대지가 고로에서 쇳물이 녹아 내리듯이 눈 얼음이 녹아서 차디찬 계곡물이 흘러 내리고 먼 산에 아지랑이가 떠오르는 봄이 되여도 무덤고 불벌 더위가 내려 쬐는 여름이 되여도 오평백과가 무르익고 설악산에 단풍이 깃드며 달빛이 창가를 비추는 정서가 아로새긴 가을이 되여도 다시 하얀눈이 온세상을 하얗게 덮이고 대지가 다시 꿈꿈 얼어 붙은 겨울이 되여도 계절의 감각도 모르는채 새벽부터 젖소의 유방에 가득찬 우유를 한 방울도 남김없이 짜야하고 (사실은 착유기를 통하여 젖을 짜지만) 친진한 젖소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젖을 사람에게 빼앗기고 있는 그 순간에도 커다란 눈망울을 굴리면서 사람이 젖을 빼앗는 멧가로 지불하는 몇kg의 사료를 아무불평없이 먹고 있는 정경은 우리사회에서 이해가 상반되는 공존공생이 이루어 질수가 있을가하는 생각이 문득 머릿속에 떠오른다 그런가 하면 갓난 송아지는 철저히 소독된 대용유(代用乳)를 적당한 온도에 맞추어 하루에 몇번씩 꿀걱꿀걱 빨면서 무럭무럭 자라나는 송아지를 보노라면 엄마가 자기 갓난 아기에게 젖을빨린 후 아기의

등을 쓰다듬는 엄마의 하얀 손길과 무엇이 다를가

이렇게 새벽부터 젖소와 생활이 시작되고 낮에는 풀을 베어다 준다든가 새파랗게 자란 풀밭에 놔두고 실컷 풀을 먹도록 베풀어 준 댓가로 저녁때는 다시 유방에 가득찬 우유를 한 방울도 남김없이 짜야하고 (젖을 짜때에 끝마무리를 잘못하면 유방염에 걸린다고함) 저녁늦게라도 산기를 일으킨 젖소가 새끼를 낳을때는 옆에서서 초조한 마음으로 지켜 보아야 하고 난산이라도 하면 젖소가 진통을 할때마다 함께 진통의 주기에 맞추어 새끼를 낳을 수 있도록 도와야 하고 그러다 심하면 수의사를 초빙하여 새끼를 낳는 것을 돌보다 보면 새벽이 되고 잠을 이루지 못한 눈은 빨갛게 충혈되고 온몸에 피곤은 겹치지만 또 하나의 송아지를 그것도 암송아지를 낳게되면 흐뭇한 마음이 전신의 피곤을 잊게 해 준다.

이런 고달프고 어려운 생활속에서 얻어진 생유가격은 유지율 3.4% 기준으로 kg당 307 원으로 정부가 정하여 가격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다.

#### 〈생유가격의 결정방법〉

축산부문에서 생산비 보장이 가장 안정된 부문은 낙농이라 한다.

축협중앙회(축산진흥회)가 발족되기 이전에는 우리나라 축산물가격은 어떻게 되었나 소, 돼지 닭 등 생축가격이 폭락을 하여도 정부에서는 수매할 자금도 없을 뿐만 아니라 수매비축업무를 수행할 기구도 없었다.

그래서 양축가는 빗더미 위에 올라 앉게 되고 또 2~3년 후에는 생축가격이 폭등하여도 소비자를 위한 보호책을 강구하지도 못하고 그러나 78년 4월에 축협중앙회(축산진흥회)가 발

족한 이래 축산진흥기금을 바탕으로 생축가격이 폭락하는 경우 수매비축을 하였고 생축가격이 폭등하는 경우 비축물량을 방출하는 가격안정제도를 운용하게 되었으나 79년 하반기부터 일기 시작한 국내경기불황으로 81년 상반기까지 유제품의 재고가 누증됨에 따라 유업체는 자금압박으로 경영수지에 악화를 가져와 대 낙농가 원유대의 원활한 지불을 위하여 축산진흥기금 일부를 유업체에 원유수매자금으로 지원한 바 있으나 일부낙농가는 유업체란 기업체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고 낙농가에게는 지원을 하지 않는다고 하니 그렇다고 축협중앙회에서 원유를 수매하여 비출할 수도 없어 결국 유업체에서 과잉된 우유를 전지분유로 가공하여 보관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생유가격은 매년 다른 물가인상 요인에 따라 적절하게 인상을 실시하고 있는 것이다.

생유가격은 유지율 3.4% 연간산유량 4,500 kg의 기준에 의거 직접생산비인 가축상각비 사료비 광열위생비 종부로 건물 및 대농기구상각비와 수리비 소농기구구입비 제재료비 노임등과 간접생산비인 자본이자 지대등을 산출하여

연도별 원유 가격동향

연도	실시기간	kg당가격	인상율	비고
'77	1. 1~12. 31	150원	%	유지율 3.4%기준
'78	1. 1~79. 1. 31	167	11. 3	
'79	2. 1~79. 12. 10	209	25. 1	
'80	12. 11~80. 2. 1	249	19. 1	
'80	2. 2~81. 5. 31	266	6. 8	
'81	6. 1~현재	307	15. 4	

부산물 수입을 감한 순생산비를 연간산유량 인 4,500kg로 제한 값이 kg당 가격인 것이다.

그러므로 유지율 3.4% 이상인 소로 연간산유량이 4,500kg 이상만 되면 낙농경영수지는악화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젖소의 산유능력의 향상을 위해 꾸준한 노력과 경영합리화를 유도하기 위한 과학적인 사양기술과 저능력우의 도태로 젖소개량의 뒷받침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사양기술의 개선〉

사양기술의 개선을 위해 그동안 낙협및 유업체의 낙농가지도 시군 농촌지도소의 농가 방문지도 축협중앙회의 순회기술지도 및 사양기술 개선에 대한 관계기관의 세미나 개최 등으로 우리나라의 젖소사양기술은 많은 발전을 하였으나 계속 외국의 사양기술에 접근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과거 농후사료 위주의 낙농을 하므로서 능력이 우수한 젖소의 경제적 수명을 단축하고 “착유업”이란 인상을 주고 있는 도시근교낙농을 탈피하고 청예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답이작재배와 엔시레지 제조용으로서의 옥수수 재배확대 등 조사료생산기반을 확보하고 산유량에 의한 농후사료를 급여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므로서 원유생산비를 절감 할 수 있을 것이다.

필자가 80년 12월에 캐나다 알버타 농과대학 내의 자료분석실을 견학할 기회가 있어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곳에서는 목장에서 생산되는 청초 또는 건초엔시레지등을 분석한 결과에 따라 당신펙장에서 생산되는 조사료에는 무엇 무엇이 부족하니 농후사료를 어떻게 배합하여 하루에 몇kg씩 급여하여야 그 젖소가 갖고있는 산유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회답할 정도로 발전을 하였으니 그저 놀랄 수 밖에 없다.

〈젖소개량의 방법〉

젖소개량을 위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인공수정능력검정에 의한 과감한 선발과 도태 우수축의 등록사업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어느 사업하나 농가 스스로 참여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없다.

첫째, 우리나라의 인공수정사업은 가축개량사업소에서 우수한 종모우를 사육하면서 그 종모우로부터 정액을 생산하여 시군 및 읍면소재지까지 설치된 가축인공수정소에 정액을 공급하여 농가의 희망에 따라 인공수정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으로부터 후대검정결과에 따라 우수한 종모우를 도입하여 이 종모우의 정액으로 수정할시는 수정료를 두당 6,000 원 등록우의 정액으로 수정할 시는 두당 5,000 원으로 차등가격을 두어 인공수정을 실시하였으나 낙농가는 7,000.원의 부담으로 인하여 수정을 기피하는기현상이 일어나고 있었다.

후대능력 검정우의 성적

종 모 우 명	산지	체형	낙우능력에상차		후 대 검 정 성 적		
		등급	산유량	지방량	산유량	지방율	지방량
		점	kg		kg	%	kg
TARGET	미국	90	+ 321	+12.7	7,890	3.66	289
SPECIMEN	"	88	+ 245	+10.5	6,035	3.8	304
KNOTT	"	88	+ 276	+ 4.5	8,049	3.58	288
BREND	"	91	+ 286	+10.9	8,656	3.61	313

※ 가축개량 사업소 자료

논알의 손해는 알아도 장래의 이익을 모르는 낙농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갈때에 젓소의 개량은 이루어 질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다행히 낙농가의 인식고조에 따라 후대능력검정우의 정액이 부족할 정도로 호응하고 있어 다행스런 일이라 하겠다.

둘째, 축협중앙회에서 실시하는 유우군 능력검정사업이다.

우량한 젓소의 선발을 통하여 젓소산유능력의 향상 및 선택적 이용을 도모하고 개체별 능력에 따른 효과적인 사양관리로 낙농경영의 합리화를 기하기 위하여 78년도부터 선진국의 기술습득과 대상농가의 선정방법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수립하여 79년에는 경기도 양주군 평택군과 충청남도 천원군을 선정하여 사업에 착수하였고 80년에는 전라남도 나주군과 경상남도 양산군을 선정하여 현재 대상농가 238호와 검정대상두수 3,806두로 사업을 추진중에 있다.

유우군 능력검정 결과에 따라 저능력우는 과감하게 도태하고 유우생산에 따른 농후사료비용을 검토할 수 있을뿐만 아니라 개체별 산유능력이 우수한 개체는 후대능력검정우의 정액으로 인공수정하여 생산된 암송아지는 능력예상이 우수하다고 인정 될 것이므로 후보축으로 육성 할 수 있을뿐만 아니라 일반 젓소의 암송아지 보다도 고가의 가격을 받고 판매할 수 있도록 우리 낙농가 스스로 정립하여야 한다.

셋째는 젓소의 등록사업이다.

사단법인 한국종축개량협회에서 주관하여 실

시하는 가축개량의 기초가 되는 사업으로 한우 육우 젓소 돼지를 대상으로 66년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흔히들 사람의 주민등록 사후관리도 많은 인원과 재원의 뒷받침이 이루어 지고 있는 정부에서도 주민등록증 발급 멸실 분실 전출입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는데도 어려움이 뒤 따르고 있는데 어떻게 팔고 사는 가축의 등록을 할 수가 있으며 또한 아무런 이익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데 등록을 할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데에 문젯점이 있는것이다. 젓소 개량사업은 체계적으로 등록을 하고 등록우에 대해서는 산유능력검정을 실시하여 능력이 우수한 젓소은 선발을 하고 능력이 좋지 못한 소는 과감히 도태 하여 젓소의 산유량이 연간 5,000~6,000kg 이상이 되도록 낙농기반을 우리 스스로 갖추어 최고기 가격의 등락에 의거 한우 및 육우의 생축가격이 결정이 되는 것과 같이 젓소의 가격이 능력과는 관련없이 고기값으로 결정되는 풍토를 개선토록 하여야 한다.

우리는 항상 숲속에서 있는 개개의 나무를 보고 그 나무의 아름다움을 관찰한 후 우거진 숲을 보는 관습을 버리고 먼 산에 우거진 숲을 보고 그 숲속에서 있는 개개의 나무를 관찰할 줄 아는 참됨을 이룩하여야만 우리의 고달픈 낙농에 대한 보답을 받을수 있도록 서로 마음과 뜻을 모아 능력이 우수한 젓소를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 줄수 있도록 우리나라의 낙농은 끊임 없이 발전토록 하여야 할것이다.